

몽고습래회사(蒙古襲来絵詞)를 해독한다

하시모토 유 橋本 雄 (홋카이도대학)

발표 요지

가마쿠라 후기에 일어난 몽고습래 (몽골전쟁)에 관한 사료는 의외로 적다. 그 중에서도 이 전쟁에 참가한

비후국 (肥後国:히고노 구니,현·구마모토현) 고케닌이었던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그리게 했다는

「몽고습래회사」(궁내청 소장)는 두 번에 걸친 전쟁을 생생하게 묘사한 매우 드문 역사 자료로 알려진다. 즉

몽고전쟁의 기본 사료의 하나로서 본 두루마리 그림(에마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 작품이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은 에도시대 관정 연간 (19 세기 초)의 수리·성권(成卷)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 두루마리 그림에는 착간과 개변이 많아 관정의 수리에서 적지 않은 보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하나 뿐인「옥서」(권말의 작성취지서)가 둘이나 존재하는 외에 용지 종류 또한

일관성이 없는 등 의문 투성이인 두루마리 그림이다.

따라서 본 작품을 역사연구의 측면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면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회화작품이라

해도 본 두루마리 그림이 원래의 실제 모습을 묘사 한것은 아니다. 본 작품의 모습에서 순수하게 역사적

사실을 추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두루마리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면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한 이유이다. 즉 이 두루마리 그림의 성립에 얽힌 작성자의 의도와 목적, 현장에 대한 상상적 복원,

최근의 몽골전쟁 연구와 두루마리 그림 자체의 연구성과에 입각해 규명해 본다.

이러한 작업에 의해 몽골전쟁의 표상론에 대한 범아시아사적 단서를 얻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약력

1972 년 동경출생. 1995 년 동경대학 문학부 졸업. 2000 년 동대학원 박사과정 학점취득 퇴학. 2004 년 박사(문학)학위 취득.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규슈국립박물관 설립준비실, 동 학예부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준교수.

전문분야는 중세일본의 국제교류사·문화사.

주요 저서:『중세일본의 국제관계』(요시카와 홍문관, 2005 년) , 『중화환상』(벤세이출판, 2011 년) , 『거짓의 외교 사절』(역사문화 라이브러리, 요시카와 홍문관, 2012 년) , 『"일본국왕"과 감함무역 어째서 아시카가 장군가는 중화 황제에게 「조공」했는가』(거슬러 올라가는 일본사: 외교편 [7]무로마치, NHK 출판, 2013 년)등.

몽골제국과 화약무기

무카이 마사키(도시샤 대학)

발표요지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보는 몽골제국의 이미지는 90 년대 이후 크게 변화했다. 특히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씨는 일련의 저서나 언론보도를 통해 몽골제국의 이미지를 쇄신했으며, 그 영향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차원에서의 몽골 침공의 이미지는 그것이 민족의 정체성 강화에 이용된 2 차대전 전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된 것일까. 서양화가인 야다 잇쇼(矢田一嘯, 1859 - 1913) 의 파노라마화인 「몽골습래화」와 최근 일본 만화에서 그려진 묘사를 비교해 보았다. 몽골군을 그리는 그림, 영상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선진적인 화약무기의 묘사이다. 특히 최근의 전문연구에서 그 시대에 존재한 것이 증명되지 않은 종류의 화약무기를 몽골군이 이미 실용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몽골은 중앙아시아·호라즘 왕국정복 중 바그다드침공의 과정에서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공략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도입하고, 나아가 남중국원정에서는 수군도 창설되었다. 몽골제국은 중국이나 호라즘 왕조 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각지의 다양한 기술 (과 기술집단) 을 흡수해 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것은 군사기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본 발표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점이 많은 몽골제국의 화약무기 사용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문헌이나 고고학 등 다양한 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약력

1974 년 11 월 21 일,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태생. 교토시에 살고 있음. 1993 년 3 월 후쿠오카현립 교토고교 졸업. 1998 년 3 월, 오사카대학 문학부 사학과 (동양사학 전공) 졸업. 2001 년 3 월 오사카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 (문화형태론 전공) 박사전기과정수료. 2003 년 ~ 2005 년, 중국 베이징대학 역사학계 유학. 2007 년 3 월, 오사카대학대학원문학연구과 (문화형태론 전공) 박사후기과정수료. 2007 년 ~ 2012 년, 오사카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특임연구원. 데즈카야마대학 (2007 ~ 2013 년), 간사이대학 (2010 ~ 2013 년), 고난대학 (2011 ~ 2013 년) 등 시간강사. 2013 년 4 월 ~ 현재, 도시샤대학 글로벌지역문화학부 준교수.

주요저작:

「2 장 몽골·해상력의 구조와 변천 The Structure and Transition of Mongol Sea Power」『글로벌과 히스토리와의 제국 (Global History and Empire)』, 秋田茂 Akita Shigeru, 桃木至朗 Momoki Shiro 편 eds., 오사카대학출판회 (Osaka University Press), April-2013, pp.71-106.

「원대 '조공' 과 남해정보 (The Tribute Trade in the Yuan Dynasty and Information about Nanhai Countries at Yuan Court)」『원사논총 (Yuanshi Luncong)』10 (중국원사연구회 Zhongguo Yuanshi Yanjiuhui), July-2005, pp.389-406.

原著: 日本語、翻訳: 李惠利

“The Interests of the Rulers, Agents and Merchants behind the Southward Expansion of the Yuan Dynasty, ”『吐魯番學研究—第三屆吐魯番學暨歐亞游牧民族的起源與遷徙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Journal of the Turfan Studies: Essays on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urfan Studies The Origins and Migrations of Eurasian Nomadic Peoples)』(上海古籍出版社 Shanhai Guji Chubanshe), May-2010, pp.428-445.

“‘Muslim Diaspora’ in Yuan China: A Comparative Analysis of Islamic Tombstones from the Southeast Coast, ”*Asian Review of World Histories*, Vol. 4(2), July-2016 , pp.231-256.

(http://www.thearwh.org/journal/ARWH_4_2_Articles/arwh_4_2_Mukai.pdf)

몽골·임팩트의 일환으로서의 「몽골습래」

윗카이치 야스히로 四日市康博 (쇼와여자대학)

발표 요지

13 세기에서 14 세기에 걸쳐 몽골제국 및 그 계승 정권은 유라시아 각지를 석권해 그 지배와 영향이 다양한 지역과 사회까지 이르렀다. 이 때문에 유라시아의 동서에서는 언어·종교·민족 등 문화적인 범주를 초월한 몽골적 공통양식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배경에 몽골의 패권에 의한 동서 교통의 안정을 의미하는 「몽골의 평화」Pax Mongolica 가 있다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이 개념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으며 또한 몽골 패권 하의 유라시아가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향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몽골과 유라시아 각지의 문화권과 사회는 때로는 충돌 대립하며 공존 융합하였고 다각적 중층적으로 양자의 교류가 진행되었다. 즉 유라시아 각지에 있어서 이른바「몽골의 충격」Mongol Impact 이 있었고 이에 대해 각 지역과 사회의 반응이 존재 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교류의 내용은 물론 이후의 영향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의 「몽골의 충격」에는 단기적 정치적·군사적 충격을 포함해 장기적인 경제적·문화적 충격도 포함된다. 결국 「몽골의 평화」와 「몽골의 충격」은 동시에 존재하는 표리일체의 개념으로 유라시아 전체에 있어서의「몽골의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각지에 있어서의「몽골의 충격」과 이에 대한 반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몽골로부터 두 번의 침공을 받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부터「몽골습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종래의 연구는 일본과 원이라는 2 국간 관계, 또는 여기에 고려를 더한 3 국간 관계에 의한 외교·군사 관계의 관점에 바탕한 것이었다.

몽골제국 = 원조의 대외 계략은 일본 뿐 아니라 베트남, 참파, 미얀마, 버마, 자바, 류큐, 사할린 등
해역아시아 전역에 이르며 이들은 결코 상호 무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해역 아시아
각지에서의「몽골의 충격」의 영향은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된다.

약력

1995 년 와세다대학 (제 1 문학부)졸업. 2004 년 와세다대학 문학연구과 박사후기 과정 학점취득 퇴학.

2007 년 학위 (박사(문학))취득. 2005 /4 - 2008 /3 규슈대학 인문과학연구원 전임강사(임기제) .

2009 년~고마자와대학 문학부 비상근강사. 2012 년~와세다대학 종합연구기구 중앙유라시아

역사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 2014 년~쇼와여자대학 국제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전문분야는 몽골제국기에 있어서의 동서 유라시아 교류사, 해역 아시아교류사.

주요 저서『물품에서 본 해역 아시아사 ---몽고~송원시대의 아시아와 일본의 교류』후쿠오카:

규슈대학출판회, 2008.3.

원나라 열대 황제 춘엽추선(春獵秋獮)및 석보적(昔寶赤), 귀적(貴赤)이란 집사에 대한 고증과 연구

리즈안 李治安 (南開大學歷史學院)

발표요약

원나라 열대 황제는 몽골의 옛 풍습을 답아 대도(大都) 교외의 류림(柳林)경에서 봄마다 ‘날짐승을 날게 하고(비방飛放)’ 가을철에 상도(上都) 근방의 서량정(西涼亭)과 삼불랄(三不剌)등 곳에 ‘추선(秋獮)’을 하는 것이었다. 후자는 사냥매를 놓아 새를 사냥하는 거와 길짐승을 포위해서 사냥하는 것으로 나뉜다. 대규모의 포위하여 사냥하는 것은 세조, 성종, 영종시대만 보인 것이었다. 사냥매 키우기를 맡은 한지 석보적이 사냥매집(鷹房) 집사로 등록된 것은 와활태(窩闊台)시대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흥화로(興和路)와 찰한뇌아(察罕腦兒)은 상도 부근의 황실 저문 석보적 사냥매집 주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관령제로타포 사냥매집 총관부(管領諸路打捕鷹房總管府), 인우원(仁虞院)과 인우도총관부(仁虞道總管府) 등은 조정이 석보적 사냥매집을 통할하는 기구이었다. ‘해서요동 사냥매집 만호부(海西遼東鷹坊萬戶府)’과 ‘석보적 우수 만호(昔寶赤右手萬戶)’는分別히 요양행성(遼陽行省)내, 그리고 황하 중하류에 등록되고 주둔하고 있는 사냥매집 주인을 병사의 공급원으로 하는 기구 이었다. 원나라 중기 석보적과 그가 속한 사냥매집은 점점 애마부(愛馬部)로 형성되었고 문종시대에 급격히 14024 인으로 확장하게 되어 황제 겁설(怯薛)의 산하 조직 중에 가장 큰 것으로 구성되었다. ‘마르코 폴로 여행기’, 귀적은 ‘훌륭한 다리 힘과 신속한 동작’ 이란 우수한 특징이 있고 구체적인 집무는 엽견을 끌고 황제 사냥 행사를 참여하는 것이라고 폴 펠리오 주석, 그리고 ‘원시·명안전(元史·明安傳)’등 저작은 서로 증명하고 있다. 허유임(許有壬)은 시에서 “개를 기르는 집사지만 문사(文士)와 사귀고 조상은 사냥매 집 주인이지만 집사를 대대로 전한다(人雖狗監知文士, 世是鷹房襲小兒).”고 석보적과 귀적들이 함께 잡사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아주 고묘한 풍사이자 평가 이었다. 사냥은

원래 초원민족이 군사 훈련과 군사 동원하는 의미가 담겨있고 대부분의 몽골인은 비방과 사냥을 가장 큰 취미와 자랑으로 삼는 것이었다. 연마다의 양도(상도와 대도) 황제 순행하고 맞추는 춘엽추선은 원나라의 통치계층이 몽골 전통을 지키거나 한문명을 받을 정도를 측정하는 표준이다. 무종해산(武宗海山)이 중도(中都)와 류림 근처의 ‘호응대(呼鷹臺)’를 짓고 춘엽추선의 행궁을 위 등으로 올리려는 것은 ‘삼도일대(三都一臺)’를 완성해 몽골제국 사계절 행궁 전통을 회복하는 ‘밝은 꿈’ 을 꾸려는 것이었다.

약력

1949 년 산시성(山西省) 타이위안시 (太原市) 출생

1978 년 10 월—1982 년 7 월, 남개대학(南開大學) 역사학과 중국역사전공 본과

1982 년 9 월—1985 년 7 월, 남개대교 역사학과 중국고대역사전공 석사

1986 년 9 월—1988 년 12 월, 남개대학 역사학과 중국고대역사전공 박사

1985 년 7 월—1990 년 12 월, 남개대학 역사학과 강사

1990 년 12 월—1993 년 12 월, 남개대학 역사학과 부교수

1993 년 12 월—지금 , 남개대학 역사학과 교수

1997 년 7 월—2000 년 10 월, 남개대학 도서관 관장

2000 년 10 월—2006 년 12 월, 남개대학 역사학원원장

2011 년—지금, 남개대학 강석교수(講席教授)

조선 작성된 고려 사서에 나타난 원나라일본원정'에 대한 역사 서술

손위국 孫衛國 (南開大學歷史學院)

발표요지

원나라 지원 10 년 (1273 년) 에서 지원 19 년(1282 년)간에 원세조 쿠빌라이(忽必烈) 두 번을 출병해 일본을 정벌했다. 두 번 다 패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근대 동아시아 역사적인 사건으로 후세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두 번의 정벌 중에 고려는 몽골군을 동원하여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조선 관수(官修)된 <고려사(高麗史)>,<고려사 개요 (高麗史節要) >등 서사에서 원나라의 '일본원정'의 기록이 있으나 이에 대한 가진 태도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역사 서술의 측면에서 조선정부가 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역사 서술에 영향을 미친 사상사와 문화사의 원인을 검토하도록 한다.

약력

1966 년 호남성 (湖南省) 형등현(衡东县)에서 출생했다. 선후 무한대학교 武漢大學, 남개대학교 南開大學, 홍콩과학기술대학교 香港科技大學 에서 공부해 왔고 남개대학교 역사학과 박사(1998),홍콩과학기술대학교 철학 박사(2001)를 받았다. 지금 남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임하고 있다. 방문 학자로서 한국 고려대학교, 미국 하버드대학교 하버드-옌칭 연구소, 홍콩 시립대학교 香港城市大學 그리고 타이완 대학교 臺灣大學 등을 방문했다. 전공은 한국사, 한중 관계사, 중국 역사학 그리고 명청 역사이다.

이미 출판된 저작: 《王世贞史学研究》(인민문학출판사, 2006) ; 《大明旗号与小中华意识 : 朝鲜王朝尊周思明问题研究 , 1637 - 1800》(상무인서관,2007);) 、《明清时期中国史学对朝鲜的影响》(상하이사서출판사,2008);번역 작품《中华人民共和国的明清史研究》(Frederic Evans Wakeman Jr 등 저작,상하이 사서 출판사,2009); 《世鉴 : 中国传统史学》(오안조(伍安祖),왕청가(王晴佳) 저작, 중국 인민 대학교 출판사,2014) 등이 있다. 국내외 출판물에서 백여 편 논문을 발표했다.

原著 : 中国語、翻譯 : 羅奇

‘심찬호모深簷胡帽’: 한 가지 여진 모자 양식의 몽·원 그리고 이의 이후시대의 흥망사

장가가 張佳佳 (復旦大學文史研究院)

발표요지

명나라 홍무 원년에 발포한 '호복(胡服)'바뀐 명령에서 원에 유행했던 '심찬호모(深簷胡帽)'를 언급했다. 몽골과 원 시기의 자료를 종합해서 이런 모자가 심각한 시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모자, 즉'만립'(幔笠) (혹은 '方笠', “四角笠子” 이라 한다.)임을 알 수 있다. 만립은 원래 중국 금대 여진의 복식이었는데 후에 몽골에게 받아들여 몽골 정벌에 따라 중국, 고려, 중앙아시아 심지어 페르시아 지역까지 널리 퍼졌다. 군왕, 신료, 문인, 서민의 각각 사회 계층에서도 널리 이용하고 있었다. 원·명 정혁(鼎革)이후 만립은 한족 사대부들에게 원나라 중국 '호화()'의 상징으로 신속히 역사에서 사라졌다. 고려-조선 정권 바뀔 때 만립은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재현했다. 만립은 뚜렷한 시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몽원복식 연구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명나라의 모자와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만립에 대한 연구는 많은 중요한 이미지 자료가 있는 시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만립이 동아시아에 있는 유행과 소망은 간접적으로 '몽골열풍'의 흥함과 쇠함 그리고 동아시아의 유가 지식인 '호한화이(胡漢華夷)' 의식 흥망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다.

약력

1981 에 출생했고 산둥성(山東省) 가오미현(高密市) 출신이며 북경대학교 중국어 고전 문헌학학사(2004), 청화대학교 역사학과 문헌학 석사(2007), 푸단대학교 역사학과 전문사 박사를 받았다. 전공은 원·명나라 사회문화 역사이고 주요 저작은 《新天下之化：明初礼俗改革研究》 (푸단대학교 출판사, 2014 년), 《新天下之化：明初礼俗改革研究》 (푸단대학교 출판사 , 2014 년), 논문 《元济宁路景教世家考论》、《再叙彝伦：洪武时期的婚丧礼俗改革》、《别华夷与正名分：明初的日常杂礼规范》、《衣冠与认同：丽末鲜初朝鲜半岛袭用“大明衣冠” 历程初探》、《明初的汉族元遗民》 등 십여 편이 있다.

日本遠征을 둘러싼 高麗 忠烈王의 정치적 意圖

김 보광 金 甫桃 (嘉泉大学)

發表要旨

몽골제국의 등장과 확산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은, 몽골이 고려에도 진출하면서 고려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몽골이 고려에 영향을 끼친 기간은 크게 '抗蒙'이라 하던 전쟁시기와 '干涉期'라고 하는 전쟁 이후의 시기로 구별할 수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일본원정'은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몽골이 고려에게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도록 하는 招諭를 요구하였다가 초유가 실패한 이후에 몽골이 고려를 데리고 직접 일본 정벌을 추진한 정복사업이었다.

과거, '일본원정'이라는 사건은 몽골이 주도하고 고려는 여기에 동원된 전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당시 고려의 국왕(元宗 및 忠烈王)은 1차 원정과 2차 원정 사이에 소극적 회피에서 보다 적극적인 가담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음이 엿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을 놓고 당시 고려왕이던 忠烈王이 태도 변화를 일으킨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곧 태도 변화에 담긴 忠烈王의 의도, 정치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피고자 한다.

13세기 후반 忠烈王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최근에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의 특징 중 하나를 들자면, 고려를 바라보는 입장의 변화이다. 곧 고려가 입방적으로 몽골에 의해 동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이 시기 몽골의 영향력이 강하게 투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 또는 국왕이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고려-몽골 관계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忠烈王의 지위가 상징적이다. 그는 고려의 국왕이면서, 몽골과 왕실간 혼인을 한 최초의 왕이고, 뒤에는 정동행성이라는 몽골의 지방 최고 단위의 장관인 승상이 되었다. 그런데 몽골의 부마라는 지위, 또는 몽골과의 왕실간 혼인은 고려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었으며, 征東行省은 몽골이 설치하였음에도 忠烈王은 행성 내에서 자신의 역할도 요청하였다. 다시 말해서 고려왕=忠烈王은 몽골제국의 위세를 빌려 왕권을 확립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에서 몽골의 駙馬, 丞相이라는 요소를 통해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였다.

1170년부터 100년간 지속된 무신정권 시기에 고려의 왕권은 지속해서 약화되어 왔다. 1270년에 武臣政權이 무너지고 王政이復古되었지만, 이제는 몽골과의 관계 진전에 따라 고려의 여러 가지 기존 체제에 변화가 나타났다. 당장 忠烈王과 쿠빌라이의 딸 쿠틀룩케르미쉬(齊國大長公主)와의 혼인처럼 고려와 몽골 사이에 왕실혼인이 성사되었고, 中書門下省과 6部 중심의 官制가 僉議府와 4司 체제로 몽골의 요구에 따라 格下, 개편되었다. 그리고 다루가치와 같은 몽골의 관인, 군대가 고려에 상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고려의 왕권을 안정,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재설정하도록 강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몽골은 사신 趙良弼를 일본으로 보내 항복하도록 권유하였고, 외교적 접촉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쟁을 준비하였다. 사신의 파견이나 2차에 걸친 전쟁에 고려는 모두 몽골에 협조하였다.

1차 遠征 당시, 고려는 1274년에 고려는 30,500명을 징발하여 900척을 배를 건조하였고, 고려군 6천명, 水夫 6,700명이 동원되었고, 1281년의 2차 원정 당시에는 戰艦 900척, 군사 1만명, 水夫 17,000명 등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人的, 物的 부담에 고려는 심각한 곤란을 겪었고, 부담의 막중함을 여러 차례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 특히 忠烈王의 부분으로 좁혀서 보면,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려측의 호소와는 다른 맥락이 보인다. 忠烈王은 遠征 준비의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일본 원정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호응하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1차 원정 당시 몽골군과 고려군 지휘부의 혼란상을 敗戰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2차 원정에서는 지휘부의 통일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를 위해 고려측 장수들을 萬戶職에 임명, 金牌 賜與 등 몽골식 관제에 따른 지휘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몽골은 忠烈王의 요청을 허락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高麗王, 곧 忠烈王을 征東行省丞相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고려왕이 行省의 丞相을 兼任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忠烈王이 주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일본 원정 사업에 대한 몽골의 강력한 의지를 왕권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忠烈王은 몽골 풍습이나 제도에 따른 부분을 강조하였다. 곧 몽골 지배층의 一員인 '駙馬'의 의무를 강조하여, 몽골이 자신에게 지휘권 등을 인정하게 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둘째, 첫째의 연장선에서, 몽골에 지휘권을 요청하고, 이를 고려 장군들에게 적용시키게 되면서 고려군은 몽골군과의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고려군을 몽골의 군사제도인 '萬戶'로 자신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지휘권에 대한 忠烈王의 요청을 몽골이 수용하고 거기에 더해 忠烈王을 행정승상으로 임명함으로써, 몽골은 고려왕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결국 일본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忠烈王은 이 과정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의도는 忠烈王이 丞相이 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보광 略曆

主要 經歷 :

2012.05.-2014.02. 高麗大 韓國史研究所 研究教授
2014.03.-2016.02. 高麗大 BK21PLUS 韓國史事業團 研究教授
2017.03.-現在 嘉泉(가치온, Gachon)大學校 Liberal Arts College 助教授

主要 研究分野 :

고려의 정치제도, 권력구조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려 성종.현종대 太祖配享功臣의 선정 과정과 의미(2014)

고려전기 魚袋의 개념과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2015)

고려.몽골 관계의 전개와 다루가치의 置廢過程(2015)

고려의 對蒙 대응 논리와 '大國이미지'-1231, 1232년 외교문서를 중심으로-(2015)

고려전기 公服制의 정비 과정에 대한 연구(2016)

고려 내 다루가치의 존재 양상과 영향-다루가치를 통한 몽골 지배방식의 경험-(2016)

對蒙 戰爭·講和의 과정과 高麗의 政權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李命美 (Seoul 大学)

概要

몽골과의 전쟁 및 교섭, 그리고 講和에 이르는 과정은 고려 내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武臣政權이 종식되고 王權이 회복되어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이 과정에서 보이는 高麗王權-政權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환경 변화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전 시기 고려의 외교·교섭 대상들과는 달리, 몽골은 유목국가로서의 주변과의 관계형성방식을 전쟁시기부터 講和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해왔다. 30~40 년에 이르는 전쟁과 교섭의 과정에서 고려 측은 이러한 요구들에 온전히 응하지는 않았으나, 그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였는데, 그 결과물의 한 가지로 드러나는 양상이 고려 宗室들의 외교적·정치적 활동이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단위 首將 간의 직접적인 對面 및 그를 포함한 개인 간·가문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몽골의 관계형성방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고려 왕조체제에서 太子를 포함하여 종실들은 그 정치적·외교적 활동이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몽골과의 전쟁을 계기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고려종실들의 활동 양상은 전쟁 이후에까지도 이어지며 고려-몽골 관계 및 그 안에서의 고려국왕권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고려-몽골 간에 ‘완전한’ 講和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고려 元宗이 무신집권자 林衍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복위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는데, 이 과정 역시 몽골과의 관계로 인한 고려왕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의 일단을 보여준다. 기존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고려국왕들은 중국황제의 ‘冊封’을 받았으나, 이는 事後的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실제 고려국왕의 즉위와 퇴위(혹은 폐위)는 고려 내부적 사정에 온전히 근거하였다. 그러나 世子(이후 忠烈王)의 請婚과 請軍이 받아들여지고 군대를 대동한 몽골 詔使가 파견되면서, 고려왕권은 ‘실질적인 책봉’과 ‘황실과의 통혼’이라는 두 가지 관계를 통해 황제권과 직결되었다. 이는 기존 국가 간 관계의 형식으로 존재했던 ‘책봉’이 실질화하는 변화임과 동시에, 몽골에서 정치단위 간 관계를 매개·유지하는 중요한 형식인 통혼이라는 가문 간 관계 형성방식이 고려-몽골 관계에도 작용하게 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고려왕권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러한 변화는 이후 고려-원 관계 속에서 발생한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발생시킨 구조적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略歷

서울大學校 國史學科에서 學士, 碩士, 博士學位를 받았다. 碩士學位 論文의 주제는 「高麗-元 王室通婚의 전개와 특징」이며, 博士學位 論文의 주제는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이다(2016, 『13~14 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정동행성승상 부마 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 혜안). 서울대학교 歷史研究所, 奎章閣韓國學研究院 등을 거쳐, 현재는 人文學研究院에서 研究員으로 활동 중이다. 국가 간 관계(동아시아적 관계형성방식)와 개인 간·가문 간 관계(몽골적 관계형성방식)가 고려-몽골 관계 속에서 조율되었던 양상, 그리고 그 여파로서의 고려 말 정치·사회변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原著:韓國語

14 세기 몽골제국 음식문화의 고려 유입과 변화

조 원 趙阮 (漢陽大學)

발표 요지

13 세기의 몽골제국 건국 이래 대규모의 이동이 발생해 이후 각 지역에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문화적인 접촉과 자극 그리고 변화는 몽골제국시대의 물질문화 영역 중에서도 식문화에 크게 반영되었다. 13 세기 몽골이 유라시아대륙을 정복한 후 각 지역에서 몽골의 황제에게 식사를 헌상해 14 세기에는 제국의 중심부에서 식문화의 다양화와 융합이 발생했다. 식문화의 변화는 제국 중심부에서 점차 주변지역까지 확대되었다. 1260 년 몽골과 고려의 화친 체결 후 고려에는 불교로 금지되어 있던 육식문화가 유입되었다. 몽골제국의 식문화가 고려에 융합하는 형태로 유입된 것이다. 고기를 다루는 방법과 다양한 조리법이 유입되어 양은 젓소와 돼지고기로 대체되고 원의 음료문화도 얼마간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조선시대는 불교의 쇠퇴와 함께 차를 대신한 음료가 발달하였다. 14 세기 『음선정요』에 소개된 청량음료수인 사아별의 조리법에 관한 지식이 17~18 세기 조선후기의 일용생활서인 『산림경제』와 농서 『임원경제지』에 갈증을 해소하는 물로 소개되어 있다. 본 발표에서는 몽골제국의 식문화의 다양화와 고려지역으로의 유입 과정을 검토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몽골의 식문화 유입의 흔적을 찾아보고 13 세기 몽골제국의 확대 속에서 출현하는 몽골제국의 글로벌현상의 특징과 그 의미를 고찰한다.

略歷

한양대 사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중국 중앙민족대학교에서 16 세기 몽골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북경대학교 역사학과에 진학하여 '몽골제국시기 다루가치제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에서 '17-20 세기 몽골사 연구에 나타난 청 지식인들의 몽골제국 인식'이라는 주제로 박사후연구과정(Postdoc)을 진행한 바 있다.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 연구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에서 강의중이다. 전공분야는 몽골사이며 몽골제국시기 통치제도, 주변지역과의 문화 교류, 청대의 사서에 반영된 몽골제국에 대한 인식 등을 연구해왔다.

주요 논문으로 「大元제국 다루가치체제와 지방통치- 다루가치의 掌印權과 職任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2013/12), 「明人の 시선에서 본 16 세기 漠南몽골 사회의 변화」 (『몽골학』, 2014/6), 「쿠빌라이시기 강남지역 色目人의 任官과 활약 -江浙行省 지방관부 色目人 관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2014/12), 「大元제국시기 李蘭奚(Bularqu)민과 元 정부의 관리 정책」 (『중앙아시아연구』 2015/6) 「17-20 세기 몽골사 연구에 나타난 청 지식인들의 '몽골제국'인식- 『元史類編』, 『元史新編』, 『新元史』를 중심으로 -」 (『중국학보』 2015/12) 등이 있다.

발표제목: 북원과 고려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우왕대 관계를 중심으로-

책메드 체렌도르지 Tsegmed Tserendorj (內蒙古社会科学院歴史研究所)

발표요지

명군에게 수도를 잃고 북쪽으로 물러난 1368-1388 년 사이 원을 '북원'이라 부른다. 북원 시기는 중원의 패권자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확신하기 어려운 과도기적인 시기였다. 북원과 고려 관계는 크게 '공민왕대 관계'와 '우왕대 관계'라는 두 시기로 분류가 가능하다. 공민왕대에는 원과 명이 각축을 벌이는 틈을 타 고려는 자주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 1369 년 공민왕 정권은 원과 관계를 단절하고, 명과 사대관계를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 영토를 정벌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민왕의 이러한 조치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성급한 판단이었다. 그러면서도 공민왕은 사실상 북원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양단 관계를 맺었다. 1372 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원은 내외정 안정을 회복하여 고려에 대한 외교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이 친명 정책을 고수하였기에 고려에 대한 회유정책이 실패하였다. 공민왕을 계승한 우왕 대부터 고려와 북원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고려는 다만 명과 사대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동안 국교가 단절된 북원과의 관계 재개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반대세력의 치열한 반대로 인하여 우여곡절 끝에 달성되었다. 고려의 북원과의 관계 재개는 공민왕의 일방적인 외교정책을 수정하고 명을 견제하려는 북원과 고려의 실질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된, 당시 동아시아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본고에서는 우왕대 북원과 고려와의 관계의 추진 과정, 그리고 이 관계가 당시 동아시아 역사에 미친 영향 및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약력

1999 년 몽골 국립울란바타르 대학교 졸업.

2010 년 대한민국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졸업. 文學博士 (歷史學).

전공: 중세 한-몽 관계사

주요 저작:

1. Chinggis khan (encyclopedia), co-author, Ulaanbaatar, 2006
2. Encyclopedia of history and culture of the Mongols /co-author/, Ulaanbaatar, 2004, 2006
3. History of the Yuan dynasty /元史/ (A Mongolian translation from Chinese by Ch. Dandaa), Volume I-XII, Foreword and textological study by Ts.Tserendorj, Ulaanbaatar, 2003
4. Saran-u gerel /Moonlight/. Biography of Zaya bandita of Oirat (Textological study, foreword and index by A.Ochir and Ts.Tserendorj), Ulaanbaatar, 2008
5. Iltgel shastir /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 Chapter 1-44, (Transliteration from Old Mongol into Modern Mongolian and comments by Tsegmed Tserendorj and others), Ulaanbaatar, 2007

6. Manchu Veritable Records /滿洲實錄/ (Transliteration from Old Mongol into Modern Mongolian and comments by Tsegmed Tserendorj), Ulaanbaatar, 2009
7. Ogeled-un noyad-un ug eki /Origin of Olet noblemen/, (Textological study, foreword and index by Ts.Tserendorj), Ulaanbaatar, 2010
8. Samguk yusa (三國遺事)" (translation from Korean into Mongolian with J.Gantulga), Ulaanbaatar, 2009
9. Yangban- The ruling class of Korean traditional society, Seoul, 2013
10. A study on a royal mausoleum of ancient nomads, Ulaanbaatar, 2013
11. Parhae-ko (渤海考), (translation from Korean into Mongolian), Ulaanbaatar, 2014
12. Khubilai Khan and his sucesors, Ulaanbaatar, 2015
13. 동서문화 교류와 알타이 // 아시아학술연구총서 7 / 알타이학시리즈 3 : 역락, 2016 (공저)

原著:韓国語

쿠빌라이가 일본에 보낸 명령문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비교 연구

朝克图(네이멍구대학)

발표요지

13 세기 중순 쿠빌라이는 원조를 세운 후, 1266 년, 즉 지원 삼년부터 일본과의 협상을 시작하

였고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본에 여섯 번에 걸쳐 사절단을 파견하고 몇 가지 명

령문을 전달했다. 이 명령문들은 한문으로 쓰였으며 명령문들 중 몇몇은 본문이 전해지고 있

으며 그 내용과 형식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타국에 명령문을 내는 것은 몽골 제국이 확대되면서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나 지역과 협상할 때 채용하는 하나의 외교 수단이지만, 그들의 명령문에는 몽골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와 몽골의 지배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제재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몽골 제국의 명령문은 여러 언어로 쓰였고 세계 각지에 많이 남아 있어 몽골 제국이 확대된 역사와 경위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귀중한 1 차 자료이다. 몽골 제국 시대의 명령문에 관한 연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몽골이 일본에게

전달한 명령문을 몽골 제국이 다른 국가나 지역에 미친 다양한 명령문과 망라하여 비교 분석

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쿠빌라이가 일본에 전달한 명령문을 몽골 제국이 다른 국가나 지역에 전달한 명령문과 비교함으로써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본 원정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었는지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싶다.

약력

1963 년 내 몽골 자치구 시린귀러맹 정남기(正藍旗)에서 태어났다.

1980 년 9 월-1984 년 7 월 네이멍구대학 몽고언어문학학부에서 공부했다.

1984 년 7 월부터 네이멍구 대학 몽고 언어 문학 학부에서 조교로 일했다.

1985 년 3 월-1987 년 1 월 베이징대 언어학부에서 페루시아어를 공부했다.

1993 년 9 월-1997 년 6 월 네이멍구대학 몽골역사연구소의 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여진어를

공했다

1997 년 6 월- 3 월 일본 토야마대학 인문학부 외국인 연구자
1998 년 3 월에 와세다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에서 방문 학자로 연구했다.
1998 년 4 월-
2000 년

2000 4 월- 7 월에 와세다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 과정을 밟아 동양사를 전공했
년 2006 년
다.

2006 8 월부터 네이멍구대학 몽고학학원에 취직, 2007 년 부교수로 승진, 2012 년 교수가
년 됐 다.

주요 연구 성과:

『 칭기즈 칸의 법 』 저작 야마카와 출판사. 2010 년.

이 밖에 1990 년대부터 지금까지 몽골 제국 원나라 역사에 관한 학술 연구 논문을 서른 편 이
상 발표했다.

原著：日本語、翻訳：李惠利